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 뉴딜 2019. 10 vol.10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2019. 10 vol.10

Cover story

도시재생의 크리에이터
도시재생대학

Meet up

도시재생대학에서 만난
상리마을 '나와유'

Focus on

도시재생,
건강한 도시로의 여정

‘세인트 아이브스’는 예술가들과 지역민이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위기를 타개한 케이스다. 본래 성장동력이었던 광업과 어업이 퇴조에 이르면서 한때 어려움에 빠졌던 이곳은 지역의 유휴공간에 예술가를 정착시키고 강연과 전시회 등의 활동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외부 관광객과 유수의 갤러리까지 유치하는 데 성공, 수십 만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변화했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

도시는 단순히 건축물과
이동 수단을 모아놓은 곳이 아닙니다.
빼곡하게 자리 잡은 빌딩과 도로를 달리는 버스
시장과 골목 곳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기반으로 합니다.
도시의 주인인 사람들이 도시재생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음과 뜻을 함께 모을 때
도시재생이 나아갈 방향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하며
소통의 통로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협력자로서
모두가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을 위해
관심과 응원을 더해주세요.

Contents

06
Cover story
도시재생의 크리에이터
도시재생대학

12
Meet up
세종시 상리마을
도시재생대학에서 만나
'나와유'로 하나 되다

18
Focus on
도시재생, 건강한 도시로의 여정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장
윤주

20
Carry on
창원 창동예술촌
문화예술을 품고
도시재생의 롤 모델로 뜨다

24
Look at
도시재생,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나야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윤민석

26
Get in
삶의 공간에 추억을 더하면 보물이 된다
공주 하숙마을

30
Theme map
주말이 즐거운
도시재생 프리마켓 & 축제

32
News in

34
SNS in

창동예술촌을 찾은 아이들이
자신의 얼굴을 빚어 놓은 데라코타.
활짝 웃는 모습이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창동의 오늘을 떠오르게 한다.
남녀노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도시재생.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진정한 목표이다.

도시재생 뉴딜
2019. 10 vol.10

발행인 김현미, 변창흠
발행처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일 2019년 10월 25일
통권 10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홈페이지 www.city.go.kr
블로그 blog.naver.com/newdeal4you
페이스북 www.facebook.com/newdeal4you
기획 · 디자인 The SMC(02-816-9799)

<도시재생 뉴딜>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도시재생의 크리에이터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의 자발성이다. 도시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전부가 아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녹아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도 경제적, 소비적 주체인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필수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지역주민 주도 도시재생 뉴딜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도시재생대학은 이러한 거버넌스의 기초가 되는 단체다. 각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전문 교육을 통해 주민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도시재생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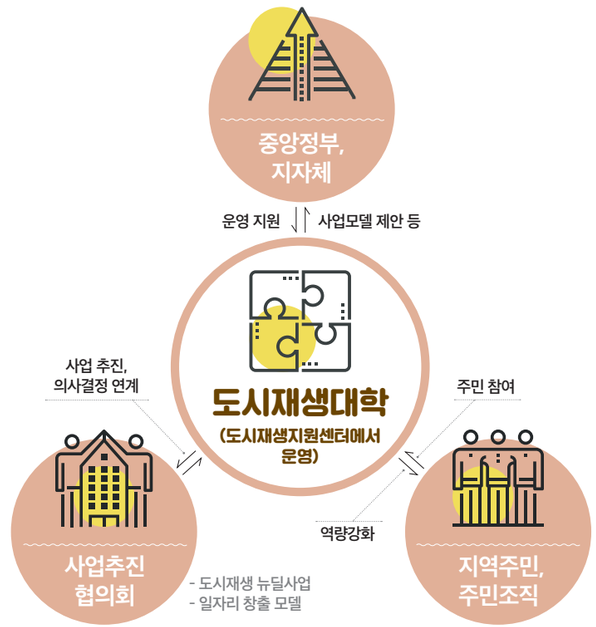
도시재생대학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자발적 참여 유도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활동성 강화, 마을 리더 발굴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도시재생대학 목적

- 도시재생사업 인식 확대
-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적극적 참여
-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

도시재생대학 중심 도시재생 지역 거버넌스



단계 별 역량 강화 지원체계

1.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원
2. 주민 참여 프로젝트 운영 지원
3. 소규모 재생사업 지원
4. 뉴딜사업 선정 및 지원

Q&A 도시재생대학, 이것이 궁금하다!

1. 도시재생대학은 어디서 운영하나요?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실과
도시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원 자격이 따로 있나요?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고 활동 및 참여 의지가 높은 주민 및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도시재생대학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세요.)

3. 주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기본 과정, 사업 연계 과정, 도시재생사업 창업자 양성 등 각 목적에 따라 강좌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게 운영되며 기본과 심화-실행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이론을 강의하고 심화-실행과정에서는 이론과 실습의 병행으로 주제 별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보통 4~12주간의 교육 후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4. 어떤 사람이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사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우리 마을이 개선되고 변화되길 원하는 분들이 들으시면 실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산학협의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습니다.

5. 도시재생대학과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은 같은 건가요?

도시재생대학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도시재생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는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으로 구성되며 최소 2년간 진행됩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및 도시재생의 다양한 사례 소개 위주로 구성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기업경영 실무, 마케팅, 회계 등의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4단계(2년) 교육을 이수하거나 2년의 코디네이터 활동 경력이 인정되면 예비도시재생코디네이터로 인증되며, 4단계 교육 이수와 2년의 활동 경험 2가지 모두가 인정되면 도시재생코디네이터로 인증됩니다.

A씨의 도시재생대학 시간표

S시에 거주하는 A씨는 전문적으로 조경을 배워 낙후된 마을을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차 뜻밖의 기회를 맞았다.
S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에 마을 조경반이 새로 개설된 것.
마을의 고유 식물에 대한 정보와 조경 노하우 등을 배우고 조경 관련 사업을 창업하기 위한 계획도 진행 중이다.

2019-2학기 H동 도시재생대학 경제주체 형성 과정

마을 조경반

일정	학습 내용
1회차	오리엔테이션 마을 정원 사례
2회차	**마을 정원의 이해(1)** - 우리 마을의 고유 식물과 궁궐터 조경 - 마을길 디자인하기(실습)
3회차	**마을 조경의 이해(2)** - 채소와 꽃의 조화 이야기
4회차	가드닝 맛보기
5회차	**식물의 이해(1)** - 허브식물을 통한 병충해 방지
6회차	**식물의 활용(1)** - 화초와 디자인 실습
7회차	**식물의 이해(2)** - 계절별 식물의 이해
8회차 9회차	**조경으로 마을에서 일하기(1)** - 경관 개선 사업 정책 학습
10회차 11회차	**조경으로 마을에서 일하기(2)** - 화초박스 배치와 꽃 심기
12회차	**조경으로 마을에서 일하기(3)** - 마을 내 조경 수요 파악 - 골목길 정비
13회차	**조경으로 마을에서 일하기(4)** - 골목길 정비 실습 - 사업 운영 결과 보고
14회차	**수료식** - 활동 결과 공유 - 수료증 부여

집수리반

일정	학습 내용
1회차	오리엔테이션 건물 이해하기
2회차	**생활 집수리 생생정보** - 우리집 진단하기 **생활 도배** - 현장에서 배우는 도배
3회차	**기초 기술로 용돈 벌기** - 페인트 칠하기 - 방충망 보수 - 필요한 공구와 사용법
4회차	**실버 커뮤니티 케어** - 화장실 안전바 설치 - 화장실 미끄럼방지 기술
5회차	**에너지 효율을 부탁해** - 에너지 효율 높이기 - LED 등 교체 - 전기/단열 기초
6회차	**집수리로 마을에서 일하기(1)** - 집수리 활동 사업 경험 공유 - 집수리 정책 학습 - 마을기업 만들기
7회차	수료식

마을 미디어반

일정	학습 내용
1회차	오리엔테이션 마을 미디어의 힘
2회차	**스토리의 힘** - 하나의 에피소드, 각각의 글 - 강렬한 첫 문장 만들기
3회차	**글 공유회** **나를 스토리로 담기** - 좋아하는 것 취재하기
4회차	**글 공유회** **우리를 스토리로 담기** - 생동감 있는 글 만들기
5회차	**글 공유회** **사진을 스토리로 담기** - 사진으로 일상 표현하기
6회차	**글 공유회** **글과 디자인, 편집 기초**
7회차	인쇄 및 제작 과정 살피기
8회차	**마을소식지 평가** - 발간회 - 퇴고하고 비평하기 - 소식지 개선 워크숍
9회차	**소식지로 마을에서 일하기** - 소식지와 마케팅 **마을 소식지 평가** - 우리마을 내 소식지 현황 조사
10회차	**수료식** - 활동 결과 공유 - 수료증 부여

유형 별 **도시재생대학 활동기**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순천시 도시재생 상인대학

순천시는 구도심의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한다. 상인들의 의식개선과 도시재생 경제주체 육성을 목표로 하며 수료 후 상인들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버스터미널 주변의 침체된 상권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이 직접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서비스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하며 수업과정에서 공동체 사업 발굴과 주민이 직접 재생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전남 무안 도시재생대학

전남 무안의 도시재생대학은 문화·예술, 교육, 농업·복지, 중심 상가, 청년 등 분야별로 운영된다. 공통과목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주민의 역할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특히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와 함께 팀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도시재생대학 운영의 목표다.

“지역 경제 주체로 성장”

수원시 도시재생대학 경영학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는 것은 도시재생대학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수원시는 도시재생대학 경영학과 과정을 운영해 지역 주민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마을 조경, 바리스타, 마을해설가 등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과정 이수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쇠퇴한 지역에는 새로운 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고 창업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일자리가 제공됨으로써 주민과 지역이 모두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도시재생대학에서 역량을 키운 주민들은 지역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축제인 ‘서울로 잇다’ 페스티벌은 이러한 주민들의 역량과 끼를 마음껏 발휘한 사례다. 서울 중림동, 서계동, 회현동 등 3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행사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되었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주민들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고 콘셉트를 설정,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즐기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시’를 주제로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3동(洞) 3색(色) 축제를 마련,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 서울시, 수원시, 순천시, 무안군

세종시 상리마을
도시재생대학에서 만나 ‘나와유’로 하나 되다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마을은 30여 년 전만 해도 연기군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었다. 중장년층은 물론 신혼부부와 유아, 청소년, 청년들도 고르게 분포해 마을은 안정적이고 활기찼다. 그런데 서부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마을의 인구는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상리는 현재 농촌 못지않은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상가도 공실이 허다한 상태다.
이에 뜻 있는 주민 몇몇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유’라는 마을협의체를 만들어 30년 전 상리를 다시 그리고 있다.

도시재생대학에서 머리를 맞대다

"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지가 오래 되었죠. 마을의 전통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마을공동체는 물론 정주인구도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난 도로, 번듯한 편의시설을 가까이 둔 인근의 신축 아파트는 상리 인구 유출에 한 몫을 했다. 마을은 텅 비어 갔고 젊은이들은 떠나갔다. 변해가는 마을을 보고 공허했지만 상리마을협의체 천인권 회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뜻이 맞는 주민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찾았다. 어떻게든 나고 자란 이곳을 이전의 상리로 되돌려 놓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유(I&You)'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일단 첫 목표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도시재생대학의 프로그램을 잘 수료하는 것이었다.

'나와유'로 함께 시작하다

'나와유'가 생각보다 일을 키웠다. 제9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부상으로 250만 원의 시범사업비를 받게 됐고, 이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 시범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하나 밤낮으로 논의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싶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250만 원의 첫 번째 사업은 화분 만들기였다. 주차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모서리와 삭막한 콘크리트 마을길에 꽃을 심으면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껏 하기에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했다. 주민들은 십시일반 손을 모아 직접 화분을 만들었다. 모두 생업이 있다 보니 작업은 새벽에 이루어졌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을길은 화사해졌다. 작은 변화에 행복을 느낀 주민들은 그 후로 시의 공모사업에 도전했다. 노력의 결실이 잘 맺어져 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는 상가 앞이나 외진 곳에 등을 달았다. 또 홍익대 벽화동아리의 도움을 받아 직접 벽화도 그렸다. 그리고 꼭 하고 싶었던 상리마을축제 '나와유'도 열었다. 무관심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주민과 기업이 같이 만드는 에너지자립마을 상리

작지만 소중했던 250만 원의 씨드 머니는 '나와유'를 강화시켰다. 그 후로도 작고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해 나갔다. 그런 경험들은 '나와유'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했고, 상리는 2018년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자립마을 상리'라는 테마로 일반근린형 사업에 선정되었다.
사업은 4년간 총 200억 원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천변의 낙후된 주거공간은 LH와 주민조합이 함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한다. 에너지 자립마을답게 이곳은 패시브건축 기법과 태양광, ESS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마을 안길에는 에너지테마체험로를 조성해 에너지 관련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상인들을 위해서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과 컨텐츠 개발을 병행해 상권 살리기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도시재생대학 8, 9, 10, 11기를 수료한 '나와유'는 지금 한창 12기 과정을 듣고 있다. '마을을 살리겠다'는 열정이 자꾸만 좋은 소식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연일까?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그날까지 꾸준히 배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나와유'. 훗날 아이들이 뛰노는 상리의 모습이 기대되는 이유다.

나와서 '나와유(I&You)'와 함께 해유!

'나와유'는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리한 마을은 한 명의 주민이라도 더 모였을 때 실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살고 싶은 상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와유' 천인권 회장과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동호 센터장을 만나봤다.

Mini Interview

상리마을협의체 '나와유(I&You)'
천인권 회장

Q. ***도시재생 사례에서 '나와유(I&You)' 가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리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범사업비 250만 원으로 작은 사업들을 실행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전해 선정이 되었지요. 아마도 하나씩 차근히 준비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Q.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주민들 대다수가 현재의 상황에 안주했죠. 그리고 마을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시재생'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해 했죠.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도시재생대학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을 변화시켰죠. 8기부터 11기까지 수료했고, 지금은 12기에 입학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Q. ***현재 '나와유(I&You)'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현재 '나와유'는 마을축제, 프리마켓인 상상마켓, 상인회, 소규모 재생사업들을 주관하고,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나와유'를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마을 일을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Q.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는데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상리마을이 있고, '나와유'가 있는 것이지요. 또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라는 점은 성공적인 뉴딜사업을 위해 지금처럼 주민과 행정기관의 좋은 소통 창구가 돼 주는 것입니다.

Mini Interview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동호 센터장

Q.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소개해주세요.***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는 것, 또 신도시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 그리고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경제 활성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업의 근간이 되는 주민 참여 부분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주민이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천적 주민 공동체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Q. ***상리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상리는 도시재생대학으로 주민 참여가 시작돼, 그 뒤로 역량강화 사업들을 두루 거쳐 뉴딜사업까지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주민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준비 과정을 거쳐 기획과 진행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여느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리에는 충청권에서 제일 큰 나무시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점에 착안해 에너지 자립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Q. ***사업 진행 과정 중 어려움이 있었다면요?***

생각해보면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주민공동체가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나와유'는 시작부터 하나씩 배우고 경험했고, 공동체 스스로 마을 내 작은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역량을 쌓았습니다. 저희들은 로드맵과 방향만 제시했고, 모든 문제와 갈등은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Q. ***앞으로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추구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저희 세종시는 뉴딜사업 이외에도 공동체 사업, 지자체 내의 재생사업, 주민들 스스로 사업비를 만들어 진행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런 것들을 세종형 도시재생이라고 합니다. 뉴딜사업만큼이나 세종시 자체적인 사업들도 탄력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방향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Focus on

전문가 칼럼

"사람으로 치면 여긴 아픈 동네였어요. 오랫동안 중심지였던 이곳이 낡아지자 신도시로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점차 생기를 잃었지요. 도시재생을 한다고 발표가 나면서 관과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도 얼마나 달라질까 싶었어요. 그래도 내심 기대가 커서 동네가 좋아진다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지요. 일단, 집 앞에 화분을 놓고 골목 청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스산하고 낡았던 동네가 예뻐지고 활기가 돌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타지로 떠난 아이가 돌아와 북카페를 차렸어요. 덩달아 저는 그곳에 떡과 식혜를 만들어 주며 바리스타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도시재생,
건강한 도시로의 여정

글 윤주(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장)

훈훈한 사연이다. 정부의 주도로 뉴딜이란 단어를 내세운 '도시재생의 정책'이 실행된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짧은 기간이지만 사연처럼 변화되는 삶 속에 만족을 표현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고, 도시재생 모델이 지역 실정과 동떨어지게 적용되어 불만이 생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도시의 풍경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절대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그 성패가 갈라지기도 하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시재생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쇠락한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데 있다.

도시재생은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여 주거지 변화를 촉진하고, 서민들의 주거 및 상업공간을 확보하며 지역 활성화를 추구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낙후된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그 주체가 되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데, 대상지마다 주민들의 역량이 다르고 도시재생의 축을 함께 이어가는 민간의 참여도 제각각이라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성공적인 모델의 대표사례는 1980년 폐쇄된 뒤 20년간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고가철도가 지금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이다. 1999년 주민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민과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각계각층의 참여를 이끌며 역사의 흔적과 문화가 깃든 명소를 만들었다. 그 출발점에서 20년이 된 2019년 지금의 시간에도 하이라인 파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 그저 결과물로만 접근해 멋진 고가공원으로 변신한 선진지로 벤치마킹하면 안 된다.

그 과정을 이끈 주민들이 공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고, 다양한 민간과 주체적으로 공조하며 행정의 지원을 이끌어낸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사회적 공공성에 집중하여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구상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롤모델이 된 것이다. 이렇듯 도시개발과 달리 도시를 되살린다는 의미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거 및 일자리의 여건을 개선하여 도시의 체질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기적인 현상, 조성 이후에 나타날 둥지 내몰림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소외되는 주민과 새롭게 정주민으로 합류할 대상, 지역의 정체성 등 고려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의 붐이 일어나면서 행정의 목표 아래 대상지에 대한 성찰과 주민의 삶을 고려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쫓기듯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의 외면 속에 지역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자본이나 정치 같은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거나 엇나가 갈등을 일으키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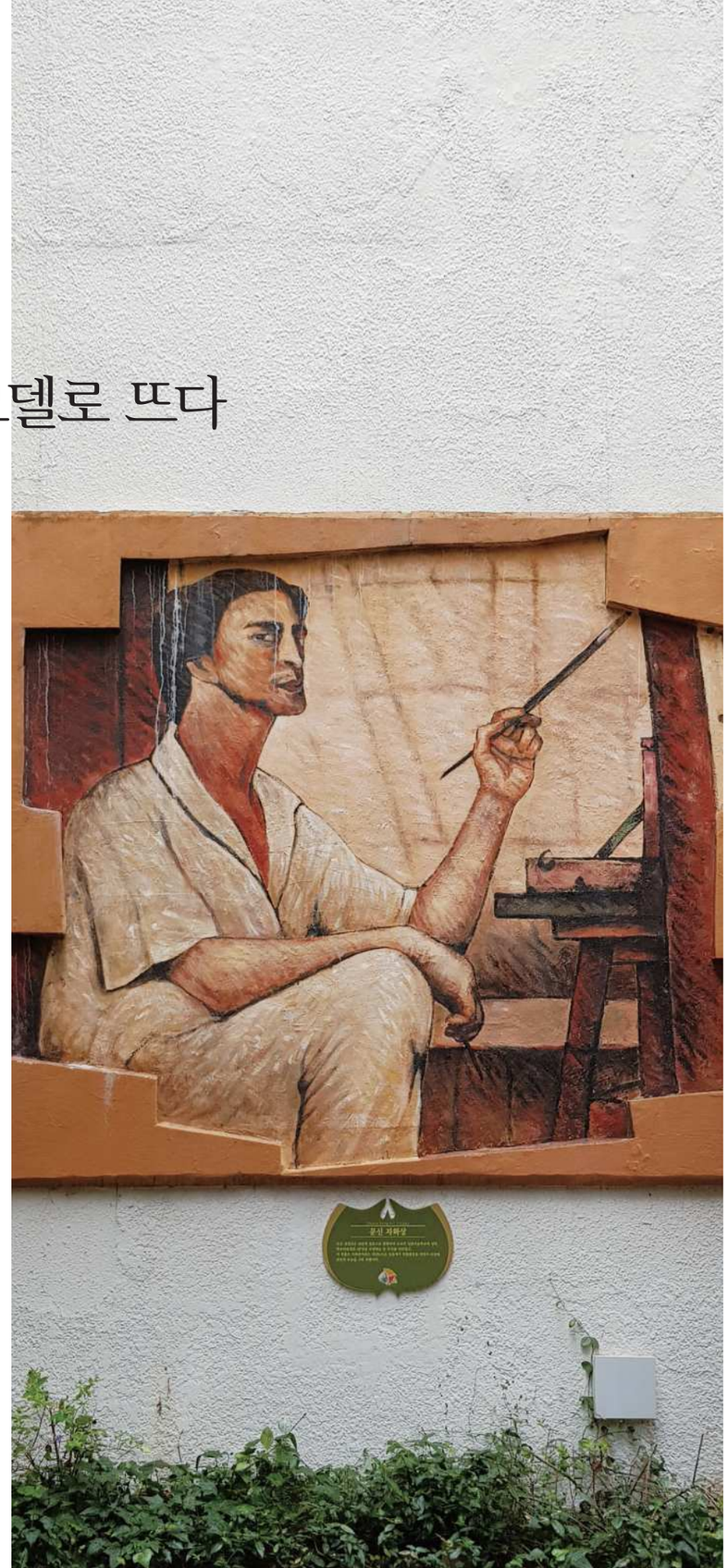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 아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후 관리에 힘쓰고 행정과 전문가 그룹들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주민들이 과정에 참여해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 자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도시라는 대상을 인식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재정비 되어야 한다. '사람과 삶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공간과 시간의 주인'임을 인식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가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온 것처럼, 도시도 진화하고 변화하며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환경, 그리고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흔적들은 그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삶의 흔적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고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시간이 축적되어 미래를 살아갈 후손들과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창원 창동예술촌

문화예술을 품고 도시재생의 롤 모델로 뜨다



한때, 서울에 명동이 있다면 마산에는 창동이 있다고 했다. 그만큼 창동은 명동만큼이나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었다. 1970~80년대만 해도 마산은 우리나라 섬유와 철강산업을 주도하면서 전국 7대 도시로 부상했다. 특히 창동은 서점, 영화관, 주점, 카페, 식당 등이 밀집돼 있어 늘 북새통을 이뤘다. 하지만 창동의 화려함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산업시설들이 하나 둘씩 철수하면서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불야성이었던 창동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빈 점포는 날이 갈수록 늘었다. 이제 창동에 남은 것은 옛 영광에 대한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그런데, 2012년 5월 창동이 '창동예술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골목마다 테마를 정해 이야기를 만들고 의미를 새겨 넣었다. 이제 을씨년스럽던 거리는 전국의 관광객들로 심심할 틈이 없고, 걸으면 걸을수록 궁금하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다.

창동, 도심밀착형 예술촌으로 거듭나다

근대산업의 중추도시였던 마산. 그 중에서도 창동은 마산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산업시설이 철수하면서 원도심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런 창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마산시가 통합 창원시로 재편되면서부터다. 창원시는 마산 원도심 살리기에 고심했고 오동동, 창동, 어시장권을 재생사업지로 선정했다. 그 중에서도 창동은 도심 속에서 예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밀착형 예술단지를 조성하는 행정주도형 사업으로 추진됐다.
창원시는 2011년부터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빈 점포 50개를 건물주에게 임차했다. 그리고 이를 지역의 실력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 또 사업구역 내 미관을 해치는 전선을 지중화하고 골목길 바닥도 재포장했다. 담장과 벽면도 공공미술로 단장하고, 조명시설과 야외 쉼터도 예술촌의 분위기에 맞게 정비했다.

세 가지 테마로 즐기는 창동예술촌

창동예술촌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뉜다. 마산예술흔적 골목, 에꼴드창동 골목, 문신예술 골목이다. 마산예술흔적 골목은 3.15대로에서 창동 거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100m 가량 이어진다. 마산이 가장 활기찼던 1950~80년을 되짚어 놓았다. 옛 마산의 풍경을 알 수 있는 사진부터, 현재호 화백의 그림을 비롯해 마산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벽 곳곳에 전시돼 있다. 또 창동예술촌의 중심인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추억의 희귀 만화와 잡지, LP판을 판매하는 '얄개 만화방' 등이 위치한다. 고모령부터 불종거리까지 이어지는 에꼴드 창동은 좁고 복잡한 골목이 얽혀있다. 이곳에는 유리공예, 도예, 냅킨아트 등 크고 작은 공방들과 배달래 화실, 백랑 갤러리, 하석원 조각실 등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들이 조성돼 있다. 시민극장을 끼고 도는 길에서부터는 문신예술 골목이 시작된다. 문신은 마산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조각가로, 파리에서 귀국해 유년시절을 보낸 마산에서 남은 생을 살았다. 문신예술 골목은 문신의 예술을 체험하고 유품을 접할 수 있는 '문신예술기념관', 문신 아트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문신아트숍', 문신의 자화상 벽화 등 문신을 만나는 다양한 공간들을 마련해 두었다.

창동
예술촌

다시, 창동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다

창동예술촌을 빛내는 것은 단연 테마 골목만이 아니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프리마켓에서는 작가들의 다양한 공예품과 창작품이 판매되고. 작가와 함께 갖가지 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 일요일에는 버스킹 밴드와 미니콘서트가 펼쳐져 북적이는 창동을 더욱 활기차게 만든다.

창동예술촌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각 기관과 단체들은 벤치마킹을 위해 줄지어 방문하고, 주한 영국 대사의 요청으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KPMG도 이곳을 방문했다.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이지만 그 물결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은 것이다. 문화·예술이라는 딱 맞는 옷을 입힌 행정과 지역상인들 그리고 입주한 문화예술인들의 절묘한 합이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도시재생,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나야

글 윤민석(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고령사회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고령화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들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나
경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이 살아가는
주거지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고령사회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31년까지 계속 증가 후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14.3%로 증가해 2060년에는 41%가 될 것이란다.(통계청. 2018).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각한 이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록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20%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26년으로 프랑스의 150년, 일본의 36년에 비해 매우 짧다.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빠르면 사회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짧고, 기존 제도도 고령사회에 맞게 조율하는 과정이 부족하게 된다. 특히 연금개혁이나 정년 문제와 같은 사회정책들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로는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거나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가 어렵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나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즉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건강,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친구나 취미활동,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연금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사회보험을 정비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회서비스 부문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도시노인의 삶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개념으로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를 이용해 설명한다. AIP는 노인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인복지 실천의 가치로서 이미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정책적 방향에 반영한 관점이다. AIP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와 함께 노인복지의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집약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고령친화도시(Age Friendly City)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이 되어가는 모든 사람이 고령자가 되어서도 불편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도시환경의 디자인을 설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활기차게 생활하면서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를 뜻한다.(부천시. 2018)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고 있는 사례들

싱가포르의 캄풍 어드미럴티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고령자 전용 공공복합주택이다. 저층은 커뮤니티 광장, 상점, 식당가, 병원, 활기찬 노년 허브, 어린이집, 공중정원, 커뮤니티 텃밭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이 입주해 있다. 고층에는 원룸 형태의 고령자 주택 100채가 2개 동으로 나눠져 있으며, 아파트는 공용 공간부터 개별 주호 내부까지 고령자를 배려한 무장애 디자인이 도입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용 공간에는 엘리베이터를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실내 벤치, 복도 벽에 설치된 핸드레일, 약한 힘으로 페달을 밟아도 쉽게 열리는 공동 쓰레기 배출기, 크고 진한 글자로 인지하기 쉽게 디자인된 각종 안내판 등 고령친화 디자인을 적용했다.
벨기에 브뤼헤시에서는 지역 사업체의 창문에 치매환자를 친절하게 맞이한다는 의미로 매듭지은 손수건이 그려진 표지판을 설치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가 사회에 더 긴밀하게 통합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
미국 뉴욕시는 2007년 WHO로부터 세계 첫 고령친화도시로 공식 지정되었다. 뉴욕시내 5개 구(區, borough)의 13개 지역사회가 자체 실천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 및 주택공급 사업을 하고 있다. 또 고령친화비즈니스를 고령친화도시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대형 식료품점인 '샵라이트'는 노인 고객을 위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매장 안에 노인 전용 계산대와 휴식용 벤치, 스쿠터 카트 등을 배치했다. 또 노인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저지방, 저염 제품군을 색깔별로 구분하고 무료 영양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부천시.2018).

고령화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됐다. 게다가 그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노인의 삶을 돌아봐야 하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최대한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도시재생은 도시만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더불어 그 안에서 노인을 배려한 사업들이 마련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도시재생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홈페이지 https://nyam.org/age-friendly-nyc/
2018. 고령친화도시 조성 용역. 부천시
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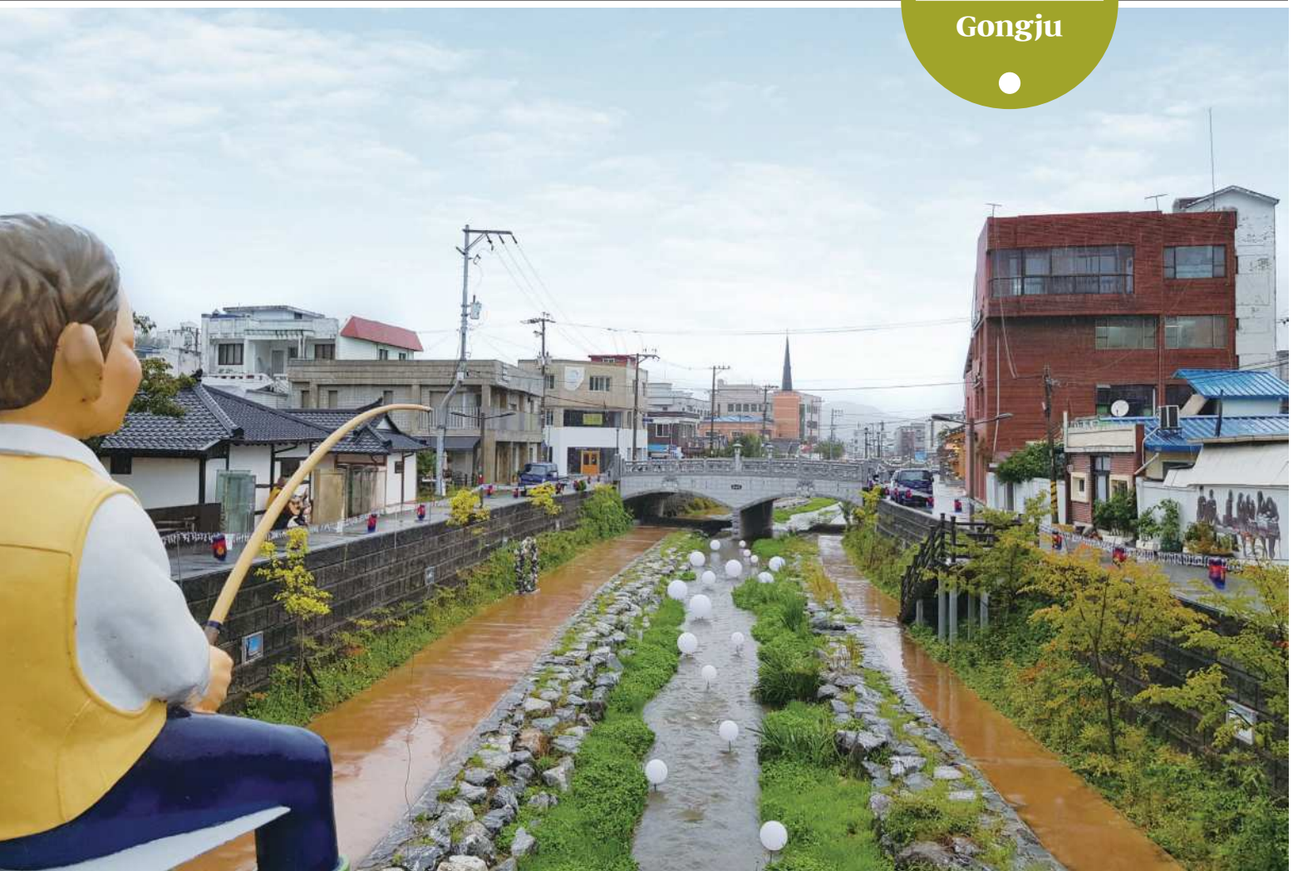
공주 하숙마을

삶의 공간에 추억을 더하면 보물이 된다

‘삶의 공간에 추억을 더하면 보물이 된다’는
공주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내건 사업의 주제다.
공주시는 2016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중학동 일대에 하숙마을과 테마골목길 등을 조성했다.
그 결과 도시재생 우수사례에서 국토부장관상을 받으며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인적 드문 오래된 주택가를 다시 활기로 채워 넣은 공주.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세대가 소통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든 것이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 대신,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재생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공주
Gongju

제민천 대통교가 보이는 하숙마을 전경



1 하숙마을의 한옥 숙박시설이자 마을의 길잡이를 해주는 곳.
2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공주제일교회. 지금은 기독교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3 1960~70년대 한옥마을 모습을 알 수 있는 당시 사진들.

공주, 1960~90년대 충청권 대표 교육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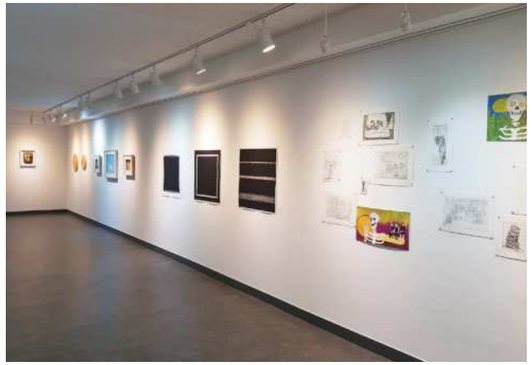
공주는 명문으로 알려진 공주사범대학, 공주사대부고, 공주고, 공주여고 등이 있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교육도시다. 이러한 여건으로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꽤 많았다. 자연스럽게 중학동 일대는 하숙집이 성행했고, 마을은 경제적으로 풍족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학교에 기숙사가 생기면서 하숙마을은 점차 침체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났고, 죽은 상권과 함께 빈집만 남게 됐다.
공주시는 중학동 일대를 공주 원도심에 활력을 주기 위한 거점으로 기획했다. ‘하숙’을 공감할 수 있는 7080의 추억에 모티브를 얻어 ‘하숙마을’을 준비한 것이다. 2017년 7월, 단장을 마친 하숙마을이 개관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빈집으로 남아 있던 근대건축물 4채와 한일당 약국 건물을 개조해 하숙촌의 원형을 살린 한옥으로 리모델링했다. 최대한 그때의 정취와 풍경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밥상, 연탄, 숙박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입혔다. 여기에 기독교박물관, 중동성당, 공주문화예술촌 등 역사문화 코스도 연결했다. 그 결과 대낮에도 인적이 드물었던 곳이 관광객들의 발길로 심심치 않게 됐다.

단발머리 여고생과 까까머리 남고생이 북적였을 하숙마을

제민천 대통교 앞에 이르면 하숙마을이 눈에 든다. 초입을 조금 지나면 한일당 약국 건물과 옆 건물 4채를 개조해 만든 한옥이 보이는데, 숙박시설이자 마을의 안내센터 같은 곳이다. 제민천을 죽 따라 걸으면 하숙마을 풍경 사진과 하숙생들의 모습을 담은 재미있는 벽화가 볼 만하다. 대통교 위에서 낚시하는 할아버지 조형물도 정겹다. 참고로, 사대부고 학생들이 방앗간처럼 들렀던 중앙분식은 이전했고, 지금은 중동오뎅집만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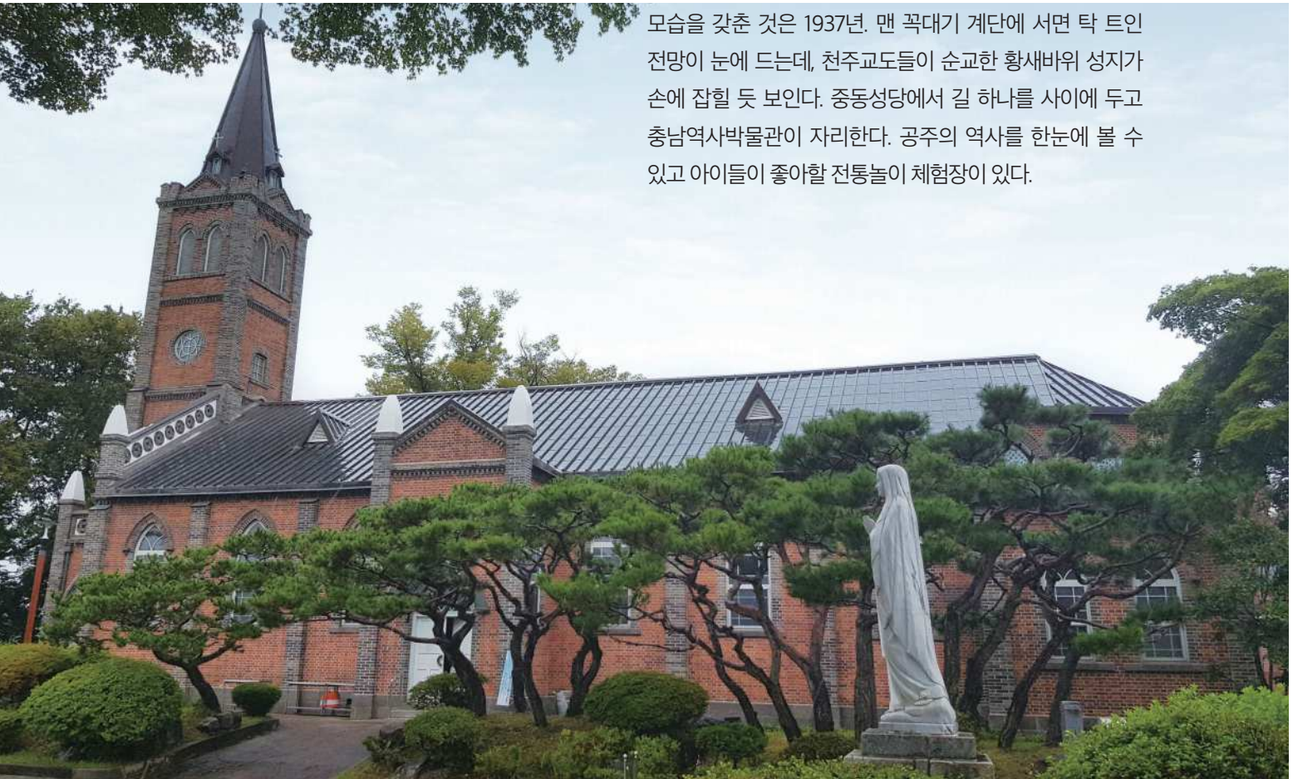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공주문화예술촌

예전 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해 예술가들을 위해 무료로 내어준 공간이다. 1층은 전시실, 2층은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오픈전, 개인전, 교류전 등 다양한 전시가 개최돼 꽤 볼만하다.



100년의 역사가 흐르는 중동성당

언덕 위에 자리한 중후한 중동성당. 공주의 근현대사를 함께하며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성당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37년. 맨 꼭대기 계단에 서면 탁 트인 전망이 눈에 드는데, 천주교도들이 순교한 황새바위 성지가 손에 잡힐 듯 보인다. 중동성당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충남역사박물관이 자리한다. 공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전통놀이 체험장이 있다.



공주에 왔으면 공산성과 산성시장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성곽인 공산성은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본래 흙으로 쌓인 토성이었으나 조선시대 때 석성으로 개축되었다. 64년간 왕도(왕궁이 있는 도시)를 지킨 공산성을 따라 걷다보면 1,500년 전 대백제의 정취가 전해지는 듯하다.

공주를 찾았다면 산성시장도 빼놓을 수 없다. 떡, 꽈배기, 납작만두 등 입맛을 당기는 다양한 간식들이 즐비하다.

여유가 한 잔, 루치아의 뜰

파란 대문 너머로 야생화가 만발한 '루치아의 뜰'. 허름한 집을 살뜰히 가꿔 찻집으로 변신시켰다. 차 문화 전문 사범인 아내 루치아와 쇼콜라티에인 남편 요한이 운영한다. 커피, 홍차, 보이차, 디저트를 판매한다. 가격은 좀 되지만 분위기 있는 곳에서 근사한 찻상을 받아보고 싶다면 가 볼만 하다.

식도락 여행 Tip. 유가네 칼국수

공주는 칼국수로 유명한 도시다. 특히 <유가네 칼국수>는 복어로 기초 육수를 낸 뒤, 싱싱한 바지락과 미더덕을 더해 깊고 시원한 맛을 완성한다. 아삭한 겉절이와 절임무는 두 접시 이상은 먹게 된다.

(복해물칼국수 8천원 / 공주시 금학동 79-1)

주말이 즐거운
도시재생 프리마켓 & 축제

도시재생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사업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는 프리마켓이나 축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통 창구다. 마을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도시재생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프리마켓과 축제들을 모아봤다. 단, 일정에 변동이 있는 행사들은 키워드로 따로 정리했다. 대부분 볕 좋은 3월부터 시작되니 미리 확인하고 참여해보자.

소소한 상도장터
서울
서울 동작구 성대로 180 상도 어울마당
10월 26일, 오후 1시~5시
02-820-1084, 상도4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스타그램
*매월 1회 열림, 일정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전 공지

헤헤마켓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95-9 해방촌 일대
11월 9일 토요일, 오후 12시~6시
02-2199-7397, hehe.market 인스타그램
*매년 4, 6, 9 11월에 열림, 일정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전 공지

명주프리마켓
강원 강릉
강원 강릉시 임영로 131번길 6 강릉대도호부관아
매월 3째 주 토요일, 오후 3시~8시
033-648-3390

구시청광장 도시재생 플리마켓
군산
전북 군산시 중앙로 178 구시청광장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6시
063-442-1166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열림

구닥다리 장터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95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11월 1일, 오후 6시~9시
061-752-4371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열림,
일정은 http://m.blog.naver.com/lkkangs에 사전 공지

수 플리마켓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11 어울림센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8시
055-222-3007

내년에는 꼭 가 봐야 할 도시재생 프리마켓 & 축제 keyword

서울 성수동	#꽃길만 걸어요
서울 암사동	#암사도시재생플리마켓
강원 춘천	#번개야시장
인천 제물포	#문화섬, 제물포
인천 석남동	#상생마을도시재생플리마켓
천안 사직동	#남산의 봄
대전 오정동	#팔캉스
대전 어은동	#안녕축제
세종 조치원읍	#나와유 상상마켓
광주 송정동	#소통미소축제
군산 신창동	#손편지축제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

지난 제1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했다.
15곳의 중·대규모 사업은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산업 기반을 회복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61곳도 선정됐다.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및 커뮤니티 구축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여성친화 마을로

충남지역의 최대 성매매 집결지로 인권 유린의 상징이었던 아산의 장미마을에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다.
아산시는 "여성의 인권침해와 아픔이 존재하는 기억을 완전히 지우기보다는 지난 과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장미마을을 여성 친화적인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미마을은 여성의 창업과 취업을 돕는 플랫폼과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현재, 아산시는 유흥업소를 매입한 뒤 건물을 허물고 길을 만드는 등 당초 구상대로 여성을 배려한 도시재생을 진행 중이다.

LH, 창립 10주년 '도시투어 프로그램' 개최

창립 10주년을 맞은 LH가 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세종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도시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시투어 프로그램은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정부정책의 핵심 수요층인 대학생, 신혼부부 및 LH협력사를 대상으로 회차당 50명씩 총 400명 규모로 시행된다.
LH는 이번 도시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 추진에 활용해 3기 신도시의 지향점인 '신혼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편히 일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충실하게 구현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에는 본 과정을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다루는 테마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애물단지' 빈집 활용해 마을재생 추진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인천도시재생연구원과 협력해 '국민 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시민에게 경영 멘토링·분야별 컨설팅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빈집 활용 창업 공간을 지역 거점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점으로 시작해 선으로 연결되고 면으로 확대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빈집 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받았다. 이 중 10개를 선정해 인큐베이팅 과정을 마친 후 내년 초 경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종으로 선발될 우수팀들에게는 빈집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도시재생 뉴딜 공식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길 위의 시작, 도시재생 뉴(NEW)딜"

기존의 것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시작을 알린다.

-소르미-

"내일을 건설하는 도시재생 뉴딜"

미래를 예측해서 내다보며 이뤄나가야 할 도시재생 뉴딜

-게링울-

"도시재생,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꿈꾸다"

도농간의 발전 격차도 심하지만 같은 도시 내에서도 낙후지역의 실태는
슬럼화가 되면서 위험할 지경입니다.
마치 소득격차에 따라서 도시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의 균형을 이루는 도시재생 뉴딜은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칭찬받는 고래-

"도시재생 뉴딜, 공간의 변화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실현하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새 숨결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세월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을 더욱 아름답게 또 가치 있게 변화시켜 주는
뉴딜 정책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mjl39276-

도시재생뉴딜 블로그 웹진 퀴즈 당첨자 소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새로운 슬로건은?

"함께 하는 행복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거 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 사업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각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다수의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toaz-

"도시재생뉴딜 = 굳딜!"

번영을 이루고 모두에게 득이 되는 좋은 거래입니다.

-주형-

매거진 읽고 커피 한 잔! 블로그 × 매거진 CROSS QUIZ!

도시재생 뉴딜 공식 블로그에 접속해 이벤트에 참여하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참여자 중 5명에게는 배스킨라빈스 파인트를, 15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 기간: 2019년 11월1일~ 11월 20일)

**Q: 여러분이 살고있는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도시재생뉴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에 소개된 여행지는
웹진(https://blog.naver.com/newdeal4yo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퀴즈 답변 작성하러 가기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도시재생 뉴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ewdeal4you)에
접속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2019 순천방문의 해

2019 도시재생 한마당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생태·문화·역사그리고사람

2019. 10. 24.(목) – 10. 26.(토) 3일간

전라남도 순천시 향동 · 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청소년수련관 |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
창작예술촌 | 문화의 거리 등

| 주최 |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 주관 | 2019도시재생한마당추진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Korea Appraisal Board
도시재생협치포럼 (사)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사)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한국거버넌스학회 (au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국도시재생청년네트워크